

'장르만 코미디' 김준호, 콩트→정극...독보적 예능감 선사

숏폼드라마 형식...여러 장르 컬래버레이션

코미디 확장성 추구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맨 김준호가 '장르만 코미디'에서 독보적인 예능감을 뽐냈다. 지난 4일 7시40분 처음 방송된 JTBC '장르만 코미디'에서는 김준호를 비롯한 김준현 유세윤 안영미 김민경 오나미 권재관 이세진 등 개그맨 아벤져스들이 출연해 큰 웃음을 안겼다.

'장르만 코미디'는 숏폼드라마 형식으로 웹툰, 드라마, 예능, 음악 등 여러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코미디의 확장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재미로 무장한 JTBC의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준호는 '찰리의 콘텐츠 거래소' 코너를 통해 세상에 팔 수 없는 개인이나 성대모사 등 각종 코미디 아이템을 구해 하고자 하는 찰리로 변신했다. 영화 '찰리의 초콜릿 공장' 속 배우 조니 뎀의 모습으로 분장한 김준호는 아이템을 들고 등장하는 개그맨 후보들에게 냉정한 평가와 함께 "안 사!"를 외쳐 큰 웃음을 안겼다. 특히 아이언맨 분장이 많은 시간을 들인 권재관이 등장하자 바로 "땡"을 외쳐 폭소케 했다.

웹툰 '금요일'을 바탕으로 한

장르만X미스터리 '끝보소'에서는 김준현이 수명을 대가로 돈을 사는 인물로, 김준호가 수명을 대가로 유행어와 유명세를 산 월드스타로 변신했다. 특히 김준호는 '까불이' 유행어로 수명 15년, '자나자나 잘됐자나'로 수명 20년을 대가로 지불해 결국 패가망신하는 캐릭터로 포복절도를 안겼다.

나아가 장르만 휴먼다큐 '장르만 연예인'에서는 '개그콘서트' 종영 후 실직 7일차를 맞이한 5인의 개그맨이 등장했다. 당장 현실의 생활고를 걱정하는 개그맨 이세진의 생활고를 걱정하는 개그맨 이세진 등 방송 일이 없을 때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장르만 코미디'의 섭외 전화와 받고 갈팡질팡하던 5인은 결국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김준호가 '최고 연기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다음 주 방송에 대해 기대를 모았다.

더불어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패러디한 '뿌의 세계'에서는 유세윤이 박해준으로, 안영미가 김희애로, 김준호가 이경영으로, 김민경이 박신영으로, 오나미가 조아라로 변신해 패러디 개그의 끝판대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이날 웃음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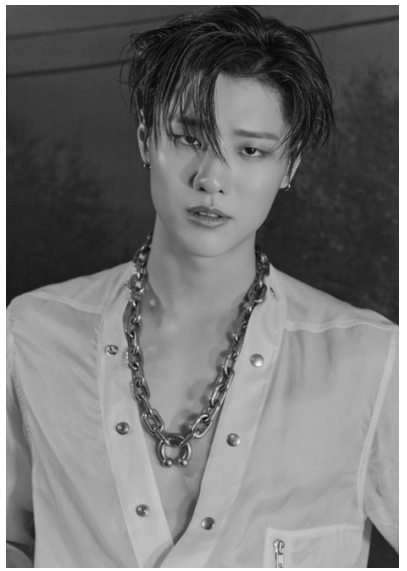
이처럼 김준호는 '찰리의 콘텐츠 거래소'에서는 마치 개그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재미를 선사하고, 숏폼드라마를 통해 콩트와 정극을 넘나드는 연기력까지 선보이며 독보적인 예능감과 함께 팔방미인의 매력을 마음껏 과시했다.

뉴스 1



유니크·엑스원→우즈=조승연 '유의미'한 시작

가수·프로듀서로서 많은 무기 장착해 성숙해진 모습



"우즈도 조승연도 모두 나." 결성과 해체, 시작과 재시작의 반복 속에서 조승연이 내린 결론이다.

우즈(조승연)는 지난달 29일 첫 미니앨범 '이퀄'을 발표하고 솔로로 컴백했다. 우즈 혹은 조승연, 먼저 이 가수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승연은 지난 2014년 5인조 보이그룹 유니크 멤버로 데뷔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유니크는 한 중합작그룹으로 양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한한명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워졌다.

멤버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개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승연은 유니

크 승연으로 솔로 활동을, 이후 루이지라는 이름으로 Mnet '쇼미더머니'에 참가했으며, 다시 우즈로 활동명을 변경하고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풀(Pool)' '디퍼런트(Different)' '아무 의미'를 발표하고 이든 'Drive' '춤' 'Kriz 'Bad', 슈퍼주니어 D&E '백야' 등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Mnet '프로듀스X101'에 참가해 랩, 춤, 노래에 다재다능한 '올라운더'라는 별명을 얻으며 최종 5위로 효명예 엑스원으로 재데뷔했다. 그러나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의 프로그램 조작 의혹으로 지난 1월 팀이 해체, 다시 솔로로 활동을 재개했다. 엑스원으로 가장 널리 이름을 알렸던 만큼, 조승연이라는 솔로 활동명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테지만 조승연은 고민 끝에 '우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솔로 활동을 이어간다.

앨범 발매 전 공개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는 새로운 도전을 없었으면 한다"던 말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조승연과 우즈 사이의 고민 끝에 모두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지은 앨범명은 '이퀄'이다. 앨범에는 데뷔 7년차 가수, 스물다섯 청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어릴 향해 가고 있는 건지" 혼란 속에서도 '더 올라운더'는 의지를 담은 1번 트랙 '리프트 업'(LIFT UP)을 시작으로, 자신의 보여줬던 것들 그리고 새롭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앨범에 채워 넣었다. 타이틀곡은 여름 분위기에 맞춘 '파랑게다. 자신의 시그니처컬러인 파란색을 곡과 앨범 비주얼에 적극 차용했다.

청량한 분위기와 빠른 비트로 중독성 강한 댄스곡을 선보였다. 춤, 노래, 랩 등 다분야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픈 의지가 담긴 곡과 무대다. 폴드와 협업한 '와이키기'는 보다 부드럽고, 강렬한 랩의 '백'과 자신의 또 다른 이면을 담았다. '노이즈'와 발라드 '주마등'까지 장르를 불문하는 다채로운 앨범이다. 과거 그는 '매일 길을 잃는다'며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속의 고민을 노래로 남기기도 했지만, 지난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간 음악적 역량을 끌어올리고, 장르를 확장하고, 가수과 프로듀서로서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해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다사다난한 7년의 굴곡 위에 쓴 '유의미'한 성장곡, 조승연이 펼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이다.

'비긴어게인 코리아' 낮과 밤 다른 2색 버스킹

설레는분위기...영화 OST들로 꾸며져 특별했던 버스킹



지난 4일 오후 11시 방송된 JTBC '비긴어게인 코리아'에서는 김원도 강릉시와 평창군을 찾은 멤버들이 버스킹을 하는 모습이 그렸다.

이날 한 낮 버스킹은 초록이 눈에 띄는 넓은 공간에서 설레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첫 번째 버스킹의 문을 연 노래는 이하이, 수현 듀엣이 부르는 윤상의 곡 '달리기'였다. 걸그룹 S.E.S가 리메이크해 인기를 모으기도 했던 이 곡은 이하이와 수현의 화음을 만나 객석

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이소라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출신에 빛나는 정지찬과 함께 유재하의 대표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선곡, 애뜻하면서도 감미로운 러브송으로 열기를 더했다. 호소력 가득한 이소라와 담백하지만 힘 있는 정지찬의 목소리가 오묘하게 어울려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직제는 자신의 곡 '타투'로 세련된 음악을 선보였고 정승환이 이승환의 노래 '물어본다'로 한 낮

버스킹의 매미를 장식했다. 정지찬이 작곡해 의미를 더하는 이곡은 정승환만의 감성 충만한 보이스로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후 '비긴어게인 코리아' 멤버들은 곤돌라를 타고 해발 1050미터에 위치한 두 번째 버스킹 장소를 찾았다.

한 소절만 들어도 명장면이 떠오를만한 다양한 영화 OST들로 꽂 채워졌던 이 시간은 이소라 이하이 수현이 영화 '써니'의 OST 삼입곡 보니엠의 '써니(Sunny)'를 시작으로, 정승환 하림 적재가 영화 '국화꽃 향기' OST로 사랑 받은 성시경의 '희재'를 열창했다. 차례마다 국보급 보컬들의 각기 다른 보이스가 관객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마지막 곡으로 이소라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 OST인 '마리아(Maria)'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정승환 등 멤버들조차 이소라가 부르는 '마리아'가 어떤 느낌으로 탄생할지 호기심을 드러냈고, 이소라 스스로도 색다른 도전이라고 밝힌 무대는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지민, AOA 전격 탈퇴...FNC "모든 연예 활동 중단 결정"

소속사 "책임 통감...아티스트 관리에 만전 기할 것"



그들 AOA 멤버 지민(29)이 팀을 탈퇴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한다.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4일 오후 11시57분께 공식 입장을 내고 "지민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역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아티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민의 10년 괴롭힘 끝에 팀을 탈퇴했다고 주장하며 연이어 저격글을 올렸다.

이후 권민아는 집으로 찾아온 지민으로부터 사과를 직접 받았고, 향후에는 이 일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글을 4일 SNS에 게재했다.

또한 이날 지민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후회와 죄책감이 들고 같이 지내는 동안 제가 민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어제도 울다가, 빌다가, 다시 울다가 그림에도 그동안 민아가 쌓아온 저에 대한 감정을 쉽게 해소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권민아가 지민의 사과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권민아는 "빌었다니요? 자기 전에 할 말은 하고 갈게요"라며 "어제는 뭐 제가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본인부터 바른 길 가세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이어 "끝까지 사과하기 싫고 나 싫어하는건 알겠어"라며 "근데 뭐? 들어올 때 그 눈빛 나 절대 안 잊을게, 죽어서 똑같이 되 돌려줄게"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이후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민의 AOA 탈퇴와 연예 활동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다음은 FNC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FNC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현재 소속 가수 지민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사 역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아티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유랑마켓' 이현이 "근력 부족으로 신체나이 60대"

톱모델 이현이가 '유랑마켓'의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5일 오후 7시40분 방송되는 JTBC '스타와 작가레-유랑마켓'(이하 '유랑마켓')에서는 톱모델 이현이가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또한 개그우먼 김민경이 인턴 판매 요정으로 활약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스페셜 MC 김민경은 두 아이를 출산하고도 여전히 톱모델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이현이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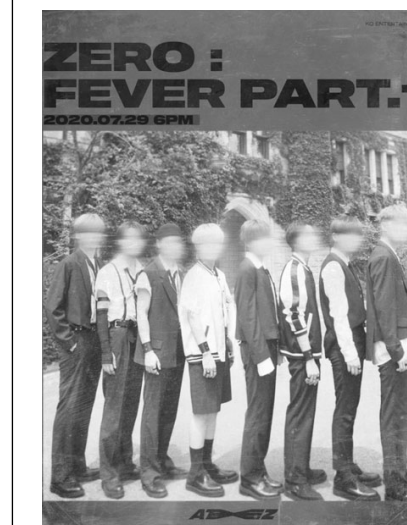
이현이에게 몸매 유지 비결을 물어보자 그는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지만, 두 아이를 낳으니 찼다"라며 "근력이 부족해 신체나이가 60대대더라"고 근수저 김민경을 부러워했다.

그러자 김민경은 "하체 근육을 키우는 꿀팁이 있다"라며 "상체 살을 찌우면 하체가 버티려고 근육이 생긴다"라고 말해 폭소를 유발했다. 또한 김민경은 "이현이와의 공통점을 찾아왔다"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공통점은 바로 두 사람 모두 필라테스를 한다는 것과 '슈퍼 모델' 이현이가 있다면 '슈퍼집 딸 김민경'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후 김민경은 "사실 발 사이즈도 같다"라고 얘기해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김민경은 평소 중고 거레를 자주 지켜본다며 인턴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3MC를 위협했다. 또한 매물로 등장한 무거운 운동기구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민경 장군'의 힘을 과시했다는 후문이다.

에이티즈, 오는 29일 컴백 '제로:피버 파트1'



그들 에이티즈(ATEEZ)가 오는 29일 컴백을 확정지었다.

4일 에이티즈의 공식 SNS에는 컴백 일시가 기재된 포스터가 깜짝 공개됐다.

초록색 바탕의 제일 상단에는 새 앨범 타이틀 제로: 피버 파트 1'(ZERO: FEVER PART.1)이 강렬한 타이포그래피로 박혀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6시에 돌아올 것을 예고한 것.

그간 총 5장의 앨범을 통해 '트레저'(TREASURE) 시리즈

를 선보였던 에이티즈는 그간 수차례 언급했던 대로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세계관의 새로운 막을 연다.

포스터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에이티즈의 모습이다. 교정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핑키로 이 가미된 스킨룩을 입고 일렬로 나란히 선 멤버들은 얼굴이 흐리게 처리된 과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인 것.

한편 에이티즈는 오는 29일 컴백을 확정짓고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